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미래세대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 '2026년 시무식' 개최...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

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28명)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 총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 원이다.

시무식 현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 소리가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올해는 9년 터울로 자녀를 출산한 직원부터 다둥이, 둘째, 다문화가정 출산 직원의 가족들이 대표로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사세가 국제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영그룹이 쏟아 올린 출산장려금 제도는 사내 출산율 제고라는 단순

한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특히 기업의 지원이 온전히 가정에만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는 수혜직원의 세금 부담을 완전히 견어내 정책의 효용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부영이 쏟아올린 나비효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민·관이 함께하는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으로 1943년 카이로 회담과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으로 독립 서광이 비쳤고, 1947년 UN한국임시위원단의 설립으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다"면서 "1950년 6·25전쟁시 전투 16개국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을 포함한 총 60개국 유엔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군정으로, 군정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유엔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엔군의 희생과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그 시대정신을 기리고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될



2026년 부영그룹 시무식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데이(10월 24일)'는 1945년 국제연합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하였으나 북한이 1975년 까지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을 폐지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참전국 상징 기념물'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2.7m 높이에 국가별 상징과 승리의 월계관이 새겨진 이 비석은 23개 참전국(한국 포함)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현재 이 기념물은 부산 UN기념공원과 함께 전 세계에 2개뿐인 유엔참전유산으로서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또한 이 회장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알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우정체' 기술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 '6·25전쟁 1129일'을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부 이상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은 지난 2023년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할 것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후원 ▲6·25재단 후원금 10만 달러 기탁 ▲격오지 부대 시설개선 지원 28억 원 기증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꾸준한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행보의 바탕에는 부영그룹이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조 2천억 원을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순천시씨름협회, '사랑의 쌀' 100포 기탁으로 온정 나누

서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순천시씨름협회(회장 서현승)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유규남)는 지난 3일, 순천시씨름협회로부터 백미(4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물품은 순천시씨름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서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승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

며, "앞으로도 전통 스포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규남 서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소중한 물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순천시씨름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쌀은 협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순천시씨름협회는 씨름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정기간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목포수산물지원센터 업무협약

'목포어묵',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식 론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영승)는 2월 5일, 목포수산물지원센터에서 "국내산 수산물 활용 목포어묵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목포어묵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목포어묵'은 올해부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식

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들은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어묵을 맛볼 수 있으며,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준영)는 "휴게소에서 론칭되는 목포어묵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2026년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재운영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나눔·상생으로 지역에 행복 더하다

전남 구례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를 지난 2월 3일부터 재운영해, 첫날 150여 명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례 희망나눔가게는 민관공동협의체인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기부한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을 나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부된 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되며 이

용 대상자는 월 1회에 한해 2~3개 품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물품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가구당 10점의 열매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가게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동대, 마을이장 등 자원봉사자들이 운영 전반에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임재신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구례희망나눔가게는 지역 주민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

민들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례/한경호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